

광주·전남 시·도민 77% “재난 지원금 추가 지급해야”

광주·전남 시·도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재난 긴급 지원금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절반이 넘는 시·도민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보다는 감염정보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주간 코로나19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광주·전남 시·도민 인식조사에서 집계됐다. 인식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문을 통해 조사됐으며, 총 1000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72.7%가 지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40.2%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응답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였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을 묻는 질문에는 주변으로의 전염(3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치료 및 회복여부'(27.6%)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 중 가장 관심 있는 정보에 대해선 확진자 이동경로(29.9%), 국내 감염자 현황(22.7%), 감염원인과 전파경로(16.8%)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방역당국이 현재 제공하는 '감염자 동선 정보의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자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7.7%

로 가장 높았다.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8.3%였으며, (확진자)개인정보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은 3.8%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피해를 묻는 질문에는 49.2%의 시·도민이 생계 및 경제 위기를 꼽았으며, 37.9%는 가계 수준(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광주·전남의 코로나19 확산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42.2%가 '개인의 일탈 행동'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규모 모임 및 단체활동'(29.6%) 등을 들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34.0%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중은 29.6%에 불과했다. 광주·전남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 또는 매우 잘하고 있다'란 답변이 39.7%로, '못하고 있다 또는 매우 못하고 있다'(17.3%)보다 두배 넘게 높았다. 감염병에 따른 재난긴급 지원금의 추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7.0%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모든 시도민 대상 금전 지급' 지원 방식을 선택한 응답 비중이 33.8%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규제에 대해선 '환자 및 접촉자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강력 규제해야한다(84.6%), '동선 정보 제공 비협조'에 대해 규제 또는 강력 규제해야한다(84.2%), '집회 개최(종교 활동 등)'를 규제 또는 강력 규제해야한다(83.1%)로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반면에 '생계를 위한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3.9%로 비교적 낮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2021년 하반기'를 선택한 응답 비중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 광주·전남이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것으로 '위기대응 원칙 확립'(29.2%)과 '경제 회복'(29.0%) 등을 선택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진이 지역정보조사센터장은 "코로나19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코로나19에 갖는 문제의 심각성과 방역당국에 요구하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조사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해 향후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실천방안 정책수립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인포그래픽은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jeri.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효죽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 19검사를 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 집단확산 철저히 경계할것”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전남의 코로나 상황이 새해 들어 주춤 통제 범위에 있다”며 “차질 집단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해준 공직자와 일선 현장에서의 노고를 격려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백신 접종이 질서있게 잘 실시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지사는 또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이 동통제조를 운영한 가운데도 발생되고 있다”며 “결국 농장단위의 방역이 발생의 관건이 되고 있어 조사기통대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만약 발생될 경우 책임을 물어 제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기인사와 관련해 김 지사는 “인사는 상대적으로 만족과 아쉬움이 교차하기 마련이다”며 “앞으로 근평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직원들의 역량이 반영된 성과 중심의 근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평제도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형성될 수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며 “세계 김 생산량의 40%가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보다 가격면에서 낮게 형성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설 열차 승차권 19~21일 비대면 예매

코레일, 온라인·전화접수...승객 간 거리두기로 창곡 좌석만 발매

한국철도(코레일)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설 열차 승차권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전화접수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 설 승차권 예매기간은 오는 19~21일 사흘간이다.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 곡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1석만 판매한다. 1인당 예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는 편도 3매)로 제한된다. 예매 대상은 2월 10~14일 5일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의 승차권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현장 예매를 선호했던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해 예매일을 별도로 마련하고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19일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로그인 후 예약할 수 있다. 비회원도 이메일 전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전화접수(철도고객센터, 1544-8545)로 예매할 수 있다. 20~21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설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21일은 호남·전라·강릉·강원·중앙·태백·영동·경춘선 예매를 한다. 예매 기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3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21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살 수 있다. 모바일 예매는 '코레일톡' 앱에서 링크예매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되거나 웹브라우저로 직접 접속해야 한다. /연합뉴스

전남도, 외국인 밀집지역 코로나 밀착방역

농공단지 현장점검·이동 선별검사소 운영 등 관리 강화

전남도는 외국인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시·군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주요 농공단지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계도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 선별검사 버스'도 홍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이 무료 선별검사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현수막을 지역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외국인 도정 모니터링단의 SNS 모니터링

한국 1인당 국민소득, G7 이탈리아 추월...경제규모 세계 10위 ↑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초반대로 줄어들지만 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유럽의 지표는 더 많이 뒷걸음질한 결과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0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물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1인당 GNI 순위 자체는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이 직접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4530달러로 그해 한국(3만3790달러)을 근소하게 앞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한국(0.1%)보다 크게 낮은 -7.9%로 전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한국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런 예상은 현실화한다면 한국의 1인당 GNI가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 하나를 넘어선 첫 사례가 된다. 한국의 경제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한국의 GDP는 1조5868억달러로, 전세계에서 10번째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마치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중개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